

# GTX A노선 서류 제출 '임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가격 경쟁력 주요 변수 '부상'

### 현대건설 중심 F와 신한은행 주축 CI 간 경쟁 치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모 서류제출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GTX A노선은 파주~동탄(83.1km)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3641억원에 달한다.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제출 마감일은 오는 29일로,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중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자(CI)와 신한은행을 주축의 재무적투자자(FT) 등 2곳이다. 현재 양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무리 짓고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모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가격 경쟁력은 우선협상자 선정의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이번 사업은 ▲도심 중심지 관통 ▲도시철도·일반열차 등 다양한 철도 복합운

행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술력이 중요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양 컨소시엄에 다수 철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되면서 무게추는 가격으로 기울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전체 사업비는 많지만, 이익폭은 크지 않은 '짠물 사업'이라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GTX 사업의 예산은 시공비 등 실제 공사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고려할 때 필요 예산보다 많게는 30% 가량 적은 수준이다. 이에 양 컨소시엄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비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 컨소시엄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뭇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CI의 경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써내기로

하는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격을 낮게 책정할 경우 실제 시공에 들어갈 때 사업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CI 측은 가격은 적정가를 쓰되, 사업계획서에 FI에 앞서 1년여간 사업을 준비해온 경험을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FI 또한 가격이 아닌 기술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CI와 유사하다. 그러나 FI 측이 명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지라도, 컨소시엄의 주축이 대형 은행인 만큼 향후 제안 가격 결정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 의견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면 가격 경쟁력이 당락을 결정짓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둘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김광국 기자 kimgg@

## IG유플러스, 지능형 소화전 국내 첫 현장설치

경북소방본부와 협력, NB-IoT기반 원격 모니터링 가능  
현장 출동 無, 관제 센터에서 소화전 이상 유무 신속 확인



I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국내 최초로 지능형 소화전을 현장에 설치했다.

IG유플러스는 경북소방본부와 협력해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기반의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 및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능형 소화전은 도시 대로변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과 주택 밀집 지역의 소화전에 NB-IoT 통신모듈을 탑재, 소화전 누수 상태, 동결 여부 및 방수 압력 정보를 NB-IoT 전용망을 통해 소방본부 관제센터에 제공한다.

지능형 소화전의 도입으로 기존 현장 방문 점검으로 발생하는 인력, 시간,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NB-IoT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지 않더라도 관제센터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소화전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능형 소화전은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소화전 주변에 설치된 주차차 방지 센서와 스피커를 통해

평상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인식하고 주차 금지 안내 방송을 하며, 화재발생 시에는 "긴급상황 화재발생, 5분후 소방차 접근, 차량이동해 주세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돕게 된다.

또한 소화전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히터가 자동으로 작동돼 겨울철 동파를 예방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영주시 전통시장, 상가밀집 지역 등에 지능형 소화전을 설치 운영하고, 추후 도내 23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IG유플러스 IoT부문장 안성준

전무는 "NB-IoT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소화전 출시로 화재발생 초기 소방서 화재 대응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 제품이 소방산업시장에 빠르게 확산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IG유플러스는 전국 시·도 지역에 NB-IoT 전용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스마트 가스 배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기, 가스 등 원격 점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내에는 화물추적, 물류관리 등의 서비스도 선보일 방침이다.

김승교 기자 kimsk@

## IG이노텍, 지식 공유 바람 분다

### 임직원 자발적 참여 '열린 세미나' 이어져

IG이노텍이 지식 공유 바람이 불고 있다. 9일 IG이노텍에 따르면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는 올해 들어서만 20여건의 세미나 안내 글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관심 있는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열린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다. 분야도 홀로그래피, 전자파간섭(EMI) 등 전문 기술, 산업 트렌드, 품질 관리 등 R&D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다양하다.

'열린 세미나'는 IG이노텍의 여러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기술 개발의 중심인 서울R&D캠퍼스 뿐만 아니라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와 오산 사업장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세미나가 열린다.

회사는 이러한 '열린 세미나'가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고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세미나를 기업 경쟁

력 강화 활동의 하나로 여겨 공식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IG이노텍의 '열린 세미나' 릴레이에는 직원들이 '이상적인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박종석 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됐다.

박 사장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자"고 강조해 왔다.

IG이노텍 관계자는 "혼자만의 기술이나 경쟁력으로는 지속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열린 세미나는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생각을 나누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 '발도 일렉트릭' ABB로 브랜드 통합

### 차세대 전략 일환, 포트폴리오 강화

ABB(한국 대표리 시성)가 차세대 전략(Next Level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7년 전 인수한 발도 일렉트릭(Baldor Electric Company)의 상호명을 3월 1일부로 ABB로 변경하고 자사 브랜드로 통합한다고 9일 밝혔다.

발도 그룹은 ABB내 로봇 및 모션 사업부부로 귀속됐다.

발도의 모든 생산제품, 영업, 지원 시설, 포장디자인, 마케팅 수단, 인보이스, 발주서는 물론이고 관련 전시회 등에도 모두 ABB 브랜드를 적용

하게 된다.

또한 이전과 동일한 생산라인, 재고 운영, 고객 서비스와 더불어 ABB가 130년 이상 구축해 온 혁신의 산물인 디지털 기술 ABB 어빌리티(Ability)와 연계할 계획이다.

사미 아티아 해당 사업본부 총괄대표는 "이는 전 세계 ABB 브랜드 통합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시장 중심의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ABB 브랜드 통합으로 고객에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발도 제품은 ABB 브랜드로 미국

내 기존 15개 생산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설계·제작된다.

또한 미주지역 전역에서 기존 ABB 브랜드의 IEC 모터, 대형 AC 모터, 제너레이터, 서비스를 담당하던 모터 제너레이터 사업부문과 아칸소 포트 스미스(Arkansas Fort Smith)의 기계사업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레그 슈 ABB미주지역 총괄대표는 "ABB는 지난 10년 간 130억달러 이상 미주지역에 투자해왔다"며 "미주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고객들은 앞으로도 현지화된 지원과 ABB의 혁신적 기술 및 글로벌 지원 모두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ube@

## KR수탁기업협의회 올해 공동과제 연구·개발 '박차'

### 3회 걸쳐 진행 실질적 성과 도출 '목표'

KR수탁기업협의회가 올해 공동과제 연구·개발 활동에 박차를 가해 업계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KR기술개발수탁기업협의회는 관·민 협업을 통해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그간 관주도로 진행됐던 '기술개발-구매' 절차를 양방향식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광명전기·세화·평일·선도전기·유경제어·산일전기·제용전기 등 총 14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이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1회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혁신개발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참여 방안이 논의된다.

이 사업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관련해 R&D를 수행 시 진흥원이 기술사업화 등에 관한 기술·경영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광국 기자

이날 협의회는 신재범 KR연구원 차장의 '철도역사 스마트형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발표를 진행, 이에 대한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예정된 '제2회 협의회'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생기술연구회를 발족, 과제발굴·기획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밖에도 9월 개최될 예정인 '제3회 협의회'에서는 철도공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국가 R&D 문턱과 제에 참여 중인 우성계전·세종이앤씨·대이아이 등 업체의 협의회 가입 여부를 심의, 협의회 외연 확장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 SK건설, 대구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 수주

### 대구·경북지역 정비사업 확장 발판 마련

SK건설은 11일 대구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 달서구 봉리동 433번지 일대에 지하2층~지상29층, 10개동 총 119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도입액은 2383억원이다.

현대백조타운 아파트가 위치한 봉리동은 덕인초, 새분리중, 대건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달구벌대로·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이하다. 향후 KTX 서대구역사 개발로 서부권 광역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진용 SK건설 도시정비영업1실장은 "특화설계와 우수한 시공능력 등 SK건설의 역량을 집중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주는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정비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승교 기자



**분전반 제작 전문**

소량 주문도 환영  
최고의 품질로  
국내 최저가판매 도전  
전적 상담 환영  
부품 판매도 가능

**(주) 금강기전**  
(T) 031-8055-7457 (F) 031-8055-7459

**양도양수 · 분할합병 · 신규면허**

**기업인수합병**    **전기·통신**    **기업진단**  
**등록기준신고**    **소방·건설**    **개인면허 법인전환**

**신규등록 / 합병 / 분할 / 양도 / 입찰컨설팅 / 재무구조개선**

**(주)프라임엠앤에이**  
TEL : 031)214-5221 H.P : 010)4477-8916 FAX : 031)214-52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16, 1418호(광교아우투스 오피스텔)

**버티브**

**임원진 대폭 보강**

버티브(Vertiv, 구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버티브는 재무와 인사, 서비스, 디지털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를 이끌 임원 인사를 통해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버티브는 핵심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고객 중심, 혁신, 인재 개발, 속도'라는 핵심 원칙과 관련한 조직역량을 강화, 2018년 성장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임원은 버티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활약하게 된다.

한편 버티브는 모회사인 에머슨에서 분사한 후 독립 법인으로서 사업을 2년째 전개하고 있으며, 전사적 차원에서 고객 관계 향상, 내부 정보 공유 활성화, 혁신 주기 단축에 주력해 왔다.

김병일 기자